

작년 소·돼지 도체수율 23년전보다 ↑

농진청, 기준 새로 설정

한우 85kg·돼지 14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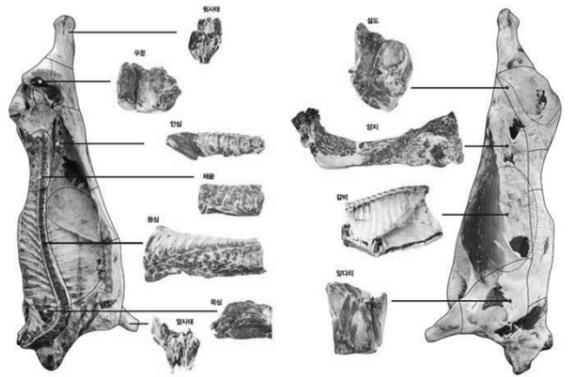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가 단위 고기 생산량 예측에 필요한 '소·돼지 도체수율' 기준을 지난 1997년에 이어 23년만인 2020년에 새롭게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돼지 도체수율 기준은 가축 1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지방 뼈 등의 생산 비율을 체중·성(性)·등급 등에 따라 산정해 놓은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가축 개량 및 사양기술의 발달로 출하체중이 증가했고 도체 특성이 변화돼 최근 출하경향을 반영한 도체수율 자료가 필요했다.

새롭게 설정된 한우 도체수율 기준에 따르면 평균 출하체중 696kg인 소에서 살코기량은 평균 273.4kg(거세한우 270.41kg, 수소 296.1kg, 암소 265.04kg)이었다.

주요 부위별로 보면 ▲갈비 53.87kg ▲양지 40.79kg ▲등심 34.80kg ▲안심 7.45kg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과 비교하면 평균 출하체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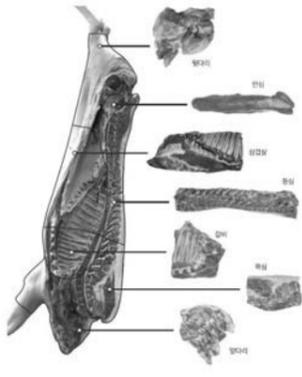
<소 대분할 부위>



506kg→696kg으로 190kg 증가했고, 고기 생산량은 1997년보다 83.21~87.63kg(거세한우 83.21kg, 수소 87.63kg, 암소 85.6kg) 늘어났다. 같은 시기 1인당 소고기 연간 소비량도 7.9kg→13kg으로 늘어났다.

돼지 도체수율 기준에 따르면 평균 출하체중 116kg인 돼지에서 살코기량은 평균 62.47kg(거세돼지 61.84kg, 암

<돼지 대분할 부위>



소비량도 15.3kg→26.8kg으로 증가했다.

소·돼지 도체수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된 이유는 그동안 보종씨수소 선발·씨돼지 개량, 가축사양표준 개정, 가축 유전자 선발 기술 적용 등 가축 개량 및 사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하체중과 도체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도체수율 기준 설정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8개도 농가에서 한우 314마리와 돼지 380마리를 구입해 조사·분석했다. 이번 소·돼지 도체수율 기준은 책자로 발간돼 축산농가, 축산물유통업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arda.go.kr)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물이용과장은 "이번 도체수율 기준 설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고기 수급 예측을 위한 정책에 활용, 축산농가는 비육 체계 개선 및 적정 출하시기 결정, 유통업체는 도체 구입 및 판매 시 정육과 부산물 공급량 예측 자료로 각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사에서 한우를 키우는 손영수씨는 "한우를 출하할 때 도체종을 어렵게 계산했는데, 이제는 최근 출하경향을 반영해 새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더욱 정확한 도체수율을 추정할 수 있게 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국민연금,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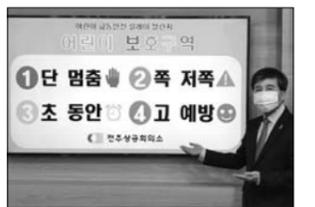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일 신임 감사에 김영(62)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영 신임 감사는 198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7기)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회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다.

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의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동참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챌린지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작은 사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응원하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한국 전북은행장의 지령으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윤방섭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과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을 지목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9일 글로벌기공관에서 제4회 장애인 날을 기념하며, 전북지역 장애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단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공단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노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상태 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진우 전직장애인부요원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 "공단과 지역 장애인 단체가 협력해 장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북지사는 "공단의 장애인지원사업을 더욱 내실화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장애인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의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

도 농기원 임주락 연구사

농진청상 수상 '영예'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임주락 농업연구사가 유용곤충 실용화 기술개발과 누에씨(잠종) 생산·보급 사업을 통한 도내 양잠산업 안정화 및 곤충산업 활성화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2021년 농촌진흥청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임주락 연구사는 1995년 2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던 도중 2015년부터 부안군에 위치한 잠사농촌진흥센터(도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6년간 양잠과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묵묵히 임해왔다.

도내 곤충 및 누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양잠교과'를 매년 개최하면서 곤충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였고,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에도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리고 도내 가장 많은 농가수를 보유한 식·의약품 곤충인 흰쌀박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임주락 농업연구사가 유용곤충 실용화 기술개발과 누에씨(잠종) 생산·보급 사업을 통한 도내 양잠산업 안정화 및 곤충산업 활성화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2021년 농촌진흥청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꽃무지(꽃베이)의 경영비 중 32%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치되는 배리류(우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전정기지를 활용한 대체 먹이원을 개발하여 배리류 작목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 가치를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

또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신체, 정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유농업의 하나로 곤충을 활용하기 위해 여치류(간벌개여치, 철썩기 등), 사슴공명어와 같은 좋은 소리를 내거나 사육이 어려운 곤충의

사육기술을 구명하였고, 대량생산 기술 및 체형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주와 고창 등 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임주락 연구사는 "이와 같은 성과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하였다. 도내 양잠산업과 곤충산업은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탐과 노력을 가해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각 담당자와 용역사를 초청해 지역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

농어촌공 전북본부, 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지난 19일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각 담당자와 용역사를 초청해 지역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의 핵심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본부는 공사의

각 지사별 담당자 20명과 20개의 용역사를 초청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역량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정희 본부장은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되새기며 역량강화 사업이 우리 농어촌 지역 발전에 큰 역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모든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농산물 빅데이터 분석 '농넷' 홈페이지 개편

aT, 사용자 중심 데이터 분석 가능 등에 중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및 소비까지 전 과정의 빅데이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농넷(www.nongnet.or.kr)' 홈페이지를 개편해 2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aT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기능 ▲서비스 대상 품목 확대 ▲지도에 기반한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 제공 등 사용자 관점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사용자가 시장·법인 등 원하는 기준을 설정하면 가격 등의 수치를 품종·지역별로 시각화한 그래프와 함께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시각화 콘텐츠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제공 품목도 기존 5대 채소류 중심에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 품목(약 330개)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검색서비스도

추가해 여러 번 클릭하지 않고도 가격, 출하량 등 종합 정보를 품목 검색창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지도 기반의 생산·유통 정보제공, 온라인에서 농산물 검색된 키워드 언급량과 온라인 쇼핑몰 상품 분석 등 다양한 고객층에 맞는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넷 서비스 개편 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사이트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T 이원기 디지털혁신단장은 "농넷은 품목별 생산량 수출입 물량 등 농산물 분야의 78종 빅데이터를 구축했으며,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서 발돋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농넷 고도화를 통해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신상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20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보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상품 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병인보험 'NEW 9988NH건강보험' 출시를 맞아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품 판매전략과 원천판매 기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NEW 9988NH건강보험은 고객이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만해도 간병인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4대 질병을 포함해 소액임까지도 보장되는 NH농협생명의 대표 건강보험 상품이다.

이번 개정으로 협약이나 당노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고객과 농업인들에게 간병인 지원 및 보장을 약속하는 실속형 상품으로 탈바꿈됐다고 NH농협생명은 소개했다.

/김윤상 기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권 대응책 논의

건협 전북도회·여경협 전북지회,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간담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는 20일 전문건설협회 8층 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설명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에 대한 향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들의 희망의 동반자로,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김지혜 회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도내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맞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



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상대적으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 경영여건의 회복과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건설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경제인과 전문건설협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